

“스타트업, 내년 키워드는 글로벌” 현대 코나 끌고, 기아 니로 밀고

전기차 수출 2배... 올 30억달러

한국무역협회 넥스트라이즈 2020

장소 2배 확대·행사 콘텐츠 다양화 300개 이상 스타트업 기술·제품 전시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은행이 개최한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19'에서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지난 7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인 8000여명의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가 운집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넥스트라이즈'가 내년에는 2배로 커진다.

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은 오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스트라이즈 2020'을 개최한다. 내년 행사도 올해처럼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함께 한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행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올해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행사규모가 5098m²에서 1만562m²로 두 배 이상 커진다. 코엑스 공간 중 오디토리움(3층)과 아셈볼룸(2층)에 더해 3층 D홀(7281m²)에서는 300개 이상의 국내외 스타트업 혁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행사 콘텐츠도 더욱 다양화된다. 스타트업 전시 외에 글로벌 및 국내, 대기업과 견기업, 투자자, 스타트업 간 1대1 미팅이 더욱 확대된다. 포춘 500대 기업, 국내 30대 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물론 중견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함께 참가해 컨퍼런스, 세미나, 토크쇼, 미팅 등 보다 다양한 만남과 연결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 소개, 테크 트렌드 등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엑스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동문 광장에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등의 체험 전시관을 조성하고 아와네트워킹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역협회 조상현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은 “올해 행사의 키워드가 연결과 공유가 키워드였다면 내년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수출액 전년비 103.3% 증가 3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코나·니로 수출규모 11만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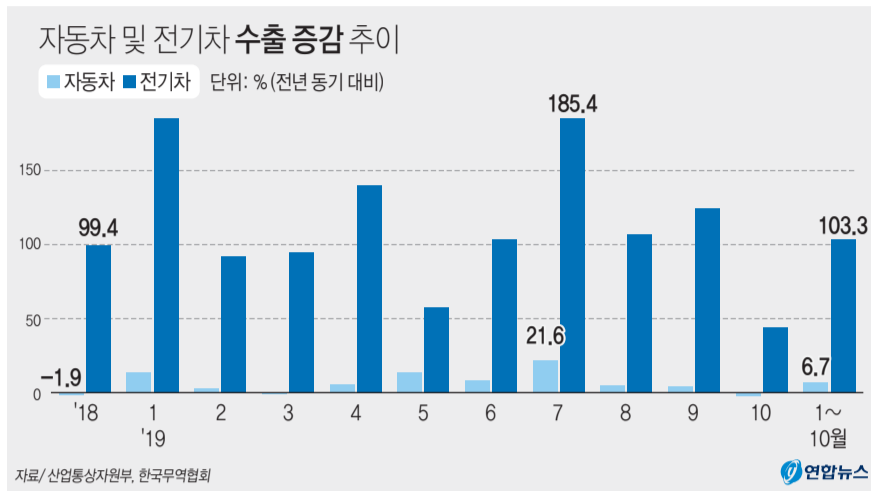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코나와 기아차 동차니로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친환경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이차전지도 덩달아 호조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3.3%나 증가한 25억6600만달러(한화 약 2조9700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수출은 357억7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전기차 수출은 지난달까지 3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기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8억2000만달러로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선



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급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전기차 수출길이 넓어지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4.4%에 그쳤으나 올해 10월까지 7.3%까지 높아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9.2%에 달해 조만간 10%대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대차 소형 SUV 코나와 기아차 니로가 친환경차 제품군 확대에 힘입어 국내 '수출왕'에 올랐다. 세계 자동차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은 'SUV'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의 수출 규모는 11만대를 넘어섰으며 친환경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여건이 우수

한 미국과 최근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유럽연합(EU) 국가를 중심으로 전기차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수출 증가에 ‘신(新) 수출동력’으로 꼽히는 이차전지도 수혜를 맞았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차전지 수출액은 61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6.8%에 달했다.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잇달아 내놓는 유럽 메이저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공급이 늘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수험생이라면 5G 스마트폰 특별 구매”

LG전자 액세서리·게임아이템 제공

LG전자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5G 스마트폰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LG V50S 씽큐, LG V50 씽큐 등 LG전자가 출시한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카카오프렌즈 액세서리 패키지'와 '넷마블 인기 3종 게임아이템'을 구매혜택으로 제공한다.

LG V50S 씽큐나 LG V50 씽큐를 구매한 수험생이 LG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사은품을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매일 주소로 수험표 사진을 보내면 확인 후 사은품을 발송한다.

LG V50S 씽큐는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장착, 스마트폰 한 대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게임, 채팅, 영상, 검색 등 다양한



LG전자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5G 스마트폰 특별 구매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멀티태스킹 수요가 높은 사용자들에게 제격이다.

LG 듀얼 스크린은 전 각도에서 자유롭게 고정되는 '360도 프리스탑' 힌지를 탑재,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탁자에 미니 노트북처럼 펼쳐놓고 사용하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세워놓고 마주앉은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전자, '에이 시그니처 브랜드 알리기 나서

세트럴 세인트마틴과 파트너십

LG전자가 최근 영국 아트스쿨 '세트럴 세인트 마틴(CSM)'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 시그니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슬로건

'기술에 영감 주는 예술, 예술을 완성하는 기술'에 맞춘 것이다.

LG전자는 협약을 통해 CSM과 LG 시그니처 발전을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CSM 재학생과 졸업생, 해외 미디어 등이 참석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폐기물 재활용 '골드' 등급

재활용률 95~99% 일때 골드 부여

삼성디스플레이가 폐기물 재활용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UL'에서 폐기물 매립제로 부문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제로 인장은 사업장 폐

기물 재활용률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률이 90~94%면 실버, 95~99%면 골드를 부여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폐액 불순물을 여과장치로 걸러내고 폐유리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아산2캠퍼스 폐기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은 폐기물 재활용률 97%를 달성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재활용률 97%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i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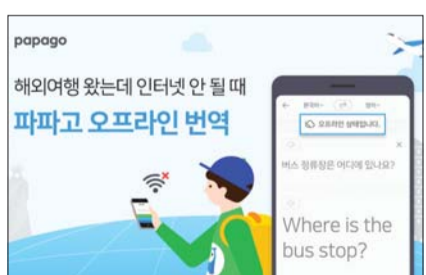
파파고, 와이파이 없어도 번역 서비스는 '쭈욱'

네이버 '오프라인 번역' 출시 네트워크 환경 감지해 모드 전환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가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프라인 번역은 네트워크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해외에서도 파파고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앱 왼쪽 상단 삼선 메뉴에 위치한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클릭한 뒤, 방문할 지역 등에 적합한 언어팩을 미리 설치해두면 된다.

이후 사용자가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앱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감지해 오프라인 번역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가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출시했다. /네이버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오프라인 번역 기능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이루어진 총 12개쌍의 언어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프리카 충분한 해외 지역이나 지하철 또는 엘리

베이터처럼 네트워크 음영 지역에서도 AI 번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보다 편리해진 셈이다.

신중희 파파고 리더는 “파파고만의 AI 번역 모델을 소형화해, 작은 용량으로도 효율적으로 AI 번역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언어의 장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파고는 오프라인 번역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설문 응답자 30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